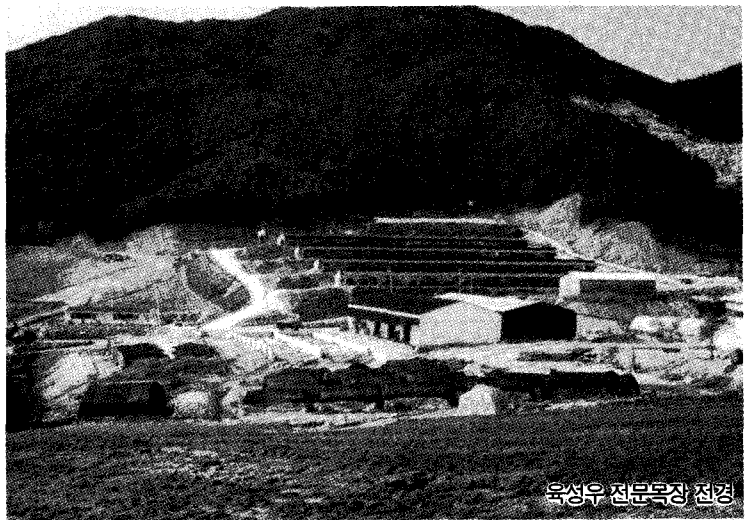


“낙농복합센터” 건립 중인 지리산낙농협동조합

홍 보 실

국제화시대를 맞아 농축산물
의 완전 개방을 앞두고 낙
농육우산업도 시시각각 급변하
고 있다.

앞으로 낙농도 개방화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피동적이고 수동
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이고 적극
적인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는
때다. 특히 우리나라 낙농은 배
합사료 원료, 조사료, 목초씨앗
등을 수입해서 먹여야 하는 등
외국 낙농에 비해 제반 여건이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현실
이다. 이와같은 열악한 환경인
데도 개방압력과 더불어 유제품
및 쇠고기수입은 무한정으로 이
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낙농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육성우 전문목장 전경

과연 우리나라 낙농이 살아남
기 위한 자구책은 무엇일까? 많
은 사안중 제일 중요한 것은 다
름아닌 고능력우 확보와 빠른
전업화로 탈바꿈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전업화의 기초는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전
업화의 기초로 빠른 육성우 전
문목장 육성이라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에 8월 특집으로 육성우 전문목장의 필요성과 외국의 육성사례를 들어 게재하였다.

이중 본고에서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가장 먼저 육성우 전문목장을 건립하여 선진낙농 추구의 기초를 닦고 개방화에 대비하고 있는 지리산낙농협동조합(조합장: 윤민호)을 소개하고자 한다.

○ 추진배경

지리산낙협은 농축산물의 수입 개방과 더불어 쇠고기 및 유제품 수입이 가속되고 있어 낙농도 국제경쟁력 시대에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자 단체인 조합은 금융사업이나 가공업등 서비스사업을 취급하기 보다는 영세한 조합원들

이 경쟁력을 갖추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생산적인 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윤조합장의 확고한 신념아래 낙협 설립시부터 복합적 낙농복합센터 조성에 들어 갔다. 지리산낙협은 낙농사업 단지는 현재 5개사업으로 구분 중 점적으로 개발 운영되고 있다.

- 첫째, 육성우 전문목장 운영
- 둘째, 조사료 시범 사업단 운영
- 셋째, 축분(유기질) 발효 공장 운영
- 넷째, 섬유질(TMR) 사료공장 운영
- 다섯째, 비육우 사업단 운영

5개 사업단중 본고에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육성우 전문목장 운영에 대해 소개하고 다음 기회에 나머지 4개 사업단도 자세히 소개

하고자 한다.

○ 목장현황

- ①운영처 : 지리산낙농협동조합
- ②조합원수 : 320명
- ③주소 : 전북 남원시 동면 유곡리 산 98-3번지
- ④전화 : (0671) 33-4541 (본조합), (0671) 626-8177 (목장)
- ⑤목장부지면적 : 770,098㎡ (232,954평)
- ⑥사육두수 : 626두(육성우 : 544두, 비육우 81두)
- ⑦종사인원 : 7명
- ⑧투자액 : 2,760,000천원(지방비 245,000천원, 축진보조 55,460천원, 융자 650,000천원, 자부담 1,846,540천원)



제1단계. 헛차사양 50일간(80kg) 사육된다



제2단계. 60일간(120~130kg) 사육된다 (이때는 방목우주 사양)

⑨ 시설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적 요 면 적	공사금액	준 공 일
진 입 로	24	296,273	94. 12. 30
폐 수 처 리 장	306	102,211	94. 12. 31
축 사	허 지	17,500	94. 2. 23
	축 사	6동	491,424
관 리 사		71,289	94. 12. 31
창 고	106평	52,138	94. 12. 31
트 랜 지 싸 이 로		105,209	94. 12. 31
목 책 시 설		21,408	94. 5. 27
초 지 조 성	경 운	99,000	
초 지 조 성	불 경 운	150,000	
초 지 조 성	임간초지	106,000	
초 지 조 성	소 계	355,000	
사 무 실	건 물	36,313	94. 11. 25
	집 기	4,612	
관 성		36,944	94. 12. 31
사 료 공 장	건 물	144,854	94. 12. 31
	기 계	8,800	94. 8. 25

○ 사양관리

사양관리는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사육되고 있다.

제1단계 : 농가들로 부터 초유때기 송아지를 구입하여 카프헛치에서 50일간(체중 80kg) 사양된다.

제2단계 : 헛치에서 옮겨진 뒤 약 60일간(체중 120~130kg) 사양단계이다. 이때는 방목사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3단계 : 2단계에서 키워진 육성우를 수정전(체중 350~400kg) 까지 사양단계이다.

제4단계 : 수정후부터 임신 5개월까지 관리하여 농가에 분양된다.

이와같이 4단계를 거치며 사양관리 되어 분양되는 지리산낙협 젓소는 송아지때부터 충분한 조사료원 확보에 따른 양질의 조사료 급여와 자체에서 생산되는 TMR 사료급여, 충분한 방목등 계획적이고 체계적 사양관리로 최고의 젓소를 만드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다.

현재 조합원 평균 산유량이 5,000kg대인데 앞으로 육성우목장에서 고능력우를 분양하여 6,000kg대를 뛰어넘어 바로 7,000천 kg대 이상으로 진입시킬 계획이란다.

낙협의 사양관리중 하나는 초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우와 자연교미를 시켜 여기에서 생산되는 송아지는 비육우 사업단지로 보내 키워진다. 현재 한우가격은 높고 젓소 비육가격은 낮은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F1은 중간 가격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전 육성우가 한우와 수정시키는 것은 아

니고 형질이 우수한 소는 선별하여 인공수정도 시키며 최근에는 국립종축원과 수정관 이식사업도 추진중에 있다.

현재 육성우 월 사육원가는 약 50,000원의 수준이나 생산비를 줄여 이 단가를 월 45,000원으로 낮추어 생산할 계획이란다.

○ 분양방법

그동안은 육성우목장 개장이 얼마되지 않아 많은 두수는 분양하지 않았으나 분양두수 대신청두수는 약 5 : 1에 이르고 있다. 올해안으로 250~300두, 내년에는 약 600두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며칠후 40두 분양계획인데 농가 신청두수는 147두 접수되었다.

분양방법은 조합원들 중심으로 분양평가단을 구성하여 분양될 소의 적정가격을 정한 후 공개 경쟁 입찰방식이 아니라 제비뽑기 하여 분양되어 상대적으로 우수한 소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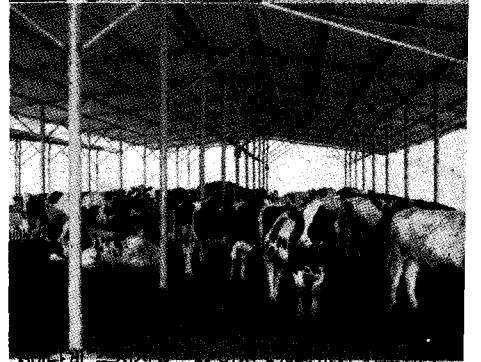
조합원으로 부터 구입하여 키운 송아지는 그 농장주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 향후계획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육성우 전 문목장을 실시하다 보니 축적된 노하우가 없어 폐사율이 높은 등 어려움이 있고 아직 “낙농복합센터” 건설풀공정이 50%정도 완성이 안되어 완전한 사양관리에 고충을 겪고 있지만 향후 조합원 200명이 전업규모 평균 착유두수 30두에 전체 조합원의 총두수 6,000두



제1단계 : 농가들로부터 초유때기 송아지를 구입하여 카프헛치에서 50일간(체중 80kg) 사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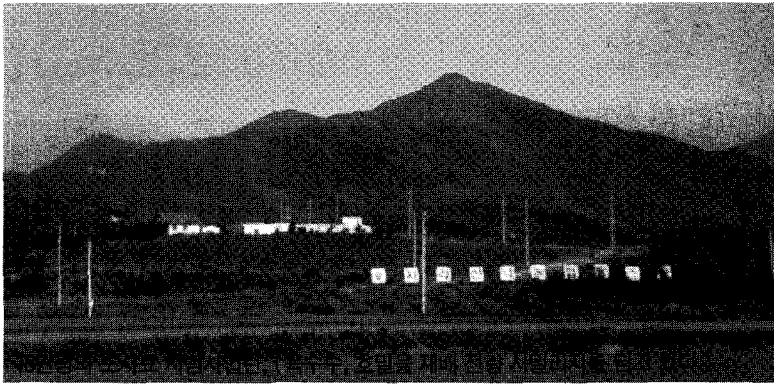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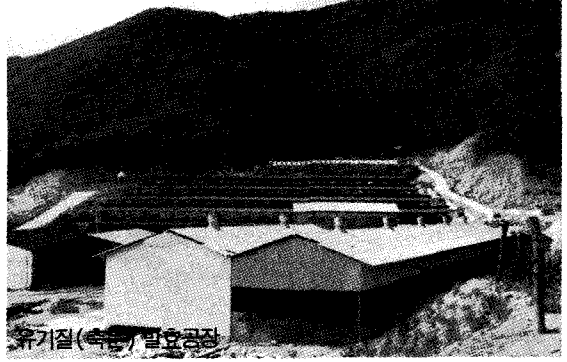
제2단계 : 헛치에서 옮겨진 뒤 약 60일간(체중 120~130kg) 사양단계이다.



제3단계 : 2단계에서 키워진 육성우를 수정전(체중 350~400kg) 까지 사양단계이다.

로 보고 약 20% 수준인 1,200두 규모를 갖출 계획이다.

계획적인 종축개발과 사양관리로 농가의 평균 유량을 7000kg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또한 현재는 농가들의 송아지를 조합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이나 완전한 목장사양관리가 정착되면 위탁사양도 실시 계획이다.



낙농복합단지 건립의 주역들.
(우로부터 신기운계장, 지해근사원, 김춘경상무, 윤민호조합장, 김정선사원)

그리고 조합 명칭이 지리산낙협이듯이 국립공원 지리산 한자락에 낙농복합센터가 자리를 잡고 있어 관광목장도 계획하여 정부에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현재 육성우 전문목장을 준비하는 조합이나 단체들이 많이 있다. 이에따라 윤민호조합장께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언을 부탁하니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며 말리고 싶단다. 그 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육성우 전문목장은 우리나라 낙농여건으로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꼭 해야만 한다.

실로 지리산낙협의 육성우 전문목장을 비롯한 “낙농복합센터”는 100여억원이 투입되는 원대한 사업으로 우리나라 낙농의 한 획을 장식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 이 사업이 완전히 완공되면 우리나라 낙농도 한층 높은 위상을 찾을 것으로 본다.

신생낙협으로 자금, 인원, 장비 등등 수많은 난관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우리나라 선진 낙농의 디딤돌을 만들고자 밤낮없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윤민호조합장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취재 : 김봉석)